

공효진+아역배우=흥행불패, 왜?

‘동백꽃 필 무렵’ 김강훈과 인기 견인 ‘상두야…’ ‘최고의 사랑’ 등서도 열연 친구같은 모성애, 작품마다 모두 대박

10년 이상 이어진 연기자 공효진의 안방극장 ‘흥행 불패’ 요인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다. 바로 매력 넘치는 아역의 존재다. 주로 로맨스를 그리는 드라마의 주연으로 활약해 온 공효진은 상대 남성 연기자는 물론 아역과 만남에서도 완벽한 호흡을 자랑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연출해 풍성한 시청의 재미를 안긴다. 2019년 무대는 현재 인기리에 방영 중인 KBS 2TV 수목드라마 ‘동백꽃 필 무렵’이다. 공효진은 상대역 강하늘과는 또 다른 매력으로 아들 역의 김강훈과 함께 드라마 인기를 견인하고 있다. 극중 초등



아역 김강훈(왼쪽)과 공효진

학교 1학년생 아들을 홀로 키우는 역할을 맡아 친구 같은 엄마의 모습을 보여준다. 부모의 엄격함이 아닌, 티격태격하면서도 서로를 보듬고 의지하는 끈끈한 엄마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한다. 자신으로 인해 세상을 빨리 알아가는 아들이 안쓰러워 눈물을 흘리는 모성애로 시청자의 가

슴을 정확하게 만들기도 한다. 공효진과 이 같은 아역의 찰떡궁합은 이미 2003년부터 시작됐다.

공효진이 안방극장에서 이름을 막 알리기 시작한 2003년 ‘상두야, 학교 가자’에서 어릴 적 연인 상두(정지훈)의 딸 보리(송민주)와 ‘툼과 제리’ 같은 관계로 재미를 줬다. 아이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엄마 같은 감성과 교차하며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이후 모두 최고 시청률 20%(닐슨코리아)를 돌파한 ‘고맙습니다’(2007) ‘최고의 사랑’(2011) ‘주군의 태양’(2013)에서도 공효진의 매력은 아역과 만나 시너지효과를 냈다. ‘동백꽃 필 무렵’에 앞서 미혼모 역을 맡은 ‘고맙습니다’에서 그는 에이즈에 걸린 딸을 위해 담담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강인한 엄마의 모습으로 보는 이

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했다. ‘최고의 사랑’에서는 사랑스러운 고모 캐릭터로 ‘명동’(양한열)의 엄마 역할을 대신했고, ‘주군의 태양’에서는 극중 승모(이도현)와 승준(홍은택)의 엄마를 대신해 살뜰함을 보여준 바 있다.

이처럼 공효진과 아역이 이끄는 드라마의 인기 요인은 모두 모성애로 모아진다. 공효진의 친근하고 푸근한 매력이 아역과 친구처럼 편안한 관계를 만드는 설정일 때 더욱 빛을 발한 셈이다. ‘동백꽃 필 무렵’의 제작사 팬엔터테인먼트의 한 관계자는 20일 “공효진과 아역 김강훈의 모습은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드라마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촬영 휴식 중에도 공효진과 김강훈은 실제 모자사이를 방불케 할 만큼 붙어있는 시간이 많다”고 말했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방탄소년단을 보고 즐기자!’ 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문을 연 방탄소년단의 팝업스토어 ‘하우스 오브 BTS’에 팬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오전 팬들이 입장을 기다리는(왼쪽 사진) 가운데 또 다른 팬들이 1층 메인 쇼룸을 둘러보고 있다.



여기가 ‘방탄’ 성지…아미 발길 끊이지않는 ‘하우스 오브 BTS’

(서울 강남구 역삼동)

지하1층·지상3층 ‘팝업스토어’ 오픈 체험실·사진관…200여종 MD도 판매

서울은 지금, ‘방탄소년단 주간’이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26일과 27일, 29일 서울 잠실 올림픽 주경기장에서 월드 투어 ‘러브 유어셀프:스피크 유어셀프’ 마지막 무대를 펼치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다양한 이벤트가 서울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18일부터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팝업스토어 ‘하우스 오브 BTS’를 열고 국내외 팬들을 맞

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물에 체험실, 사진관 등을 설치해 방탄소년단 관련 200여종의 MD 등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다. 20일에도 5000~6000명이 넘는 다양한 국적과 연령층의 팬들이 다녀갔다. 오전 10시 문을 열지만 이날도 이른 새벽부터 줄을 선 팬들이 1000명이 넘었고, 주말이라 인파가 더 많이 몰린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측은 불거리와 먹을거리 등을 보강해 내년 1월5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팬들도 나섰다. 6월 대규모 팬미팅을 마지막으로 한동안 방탄소년단을 국내에서 볼 수 없었던 팬들은 19일부터 서울 지하

철 1~5호선 전동차에서 콘서트 광고를 선보이고 있다. 또 콘서트장 인근 지하철 2호선 종합운동장역 각 출구에서도 방탄소년단의 모습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한 달간 공개한다. 공연장 주변에선 각 멤버들의 이름을 따 ‘OO로드’로 정한 공간에 이들의 얼굴 사진이 담긴 배너 광고를 내걸기로 했다.

이 같은 열기에 서울시도 지난 6월에 이어 시 명예관광 홍보대사인 방탄소년단의 공연을 맞아 이번 주말 도심에서 이들과 ‘아미’를 상징하는 보라색 조명을 밝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케이팝

스타들의 병역특례 문제에 대해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아 관심을 모은다. 18일 국회 정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노형국 국무조정실장은 ‘예슬-체육 요원 병역특례 제도’와 관련해 “시대상황을 반영해 종합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BTS가 빌보드 차트 1위를 2~3번 했고 어떤 리포트에선 BTS의 경제효과가 5조6000억 원이라고 한다”며 대중문화 분야로 병역특례 기준을 폭넓게 적용해야 한다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병무청은 앞서 “당분간 정부가 지금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신원호 PD 신작 우선순위는 ‘철통 보안’

tvN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작 착수 대본 등 최소 수량만 공유…비밀 당부

케이블채널 tvN ‘응답하라’ 시리즈를 흥행시킨 연출자 신원호 PD가 2020년 1월 방영할 신작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작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에도 전작에서처럼 ‘철통보안’에 온 힘을 기울인다. 신원호 PD를 비롯한 ‘슬기로운 의사생활’ 제작진은 이날 초 촬영을 시작했다. 드라마는 병원 의사와 간호사,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는다. 감옥을 배경으로 작년 초 방영한 tvN ‘슬기로운 감빵생활’을 잇는 시리즈물이다. tvN ‘응답하라 1997’(2012), ‘응답하라 1994’(2013), ‘응답하라 1988’(2016)의 대본을 쓴 이우정 작가도 다시 합류했다. 조성석, 유연석, 김대명 등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주연 연기자들은 최근 차례로 촬영장으로 지향했다.



신원호 PD

하지만 드라마의 설정과 내용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등장인물 소개를 담은 시놉시스를 따로 만들지 않고, 대본도 각 연기자당 1부씩만 배부하는 등 최소한의 수량만 찍어 공유하고 있다. 제작진은 스태프를 포함한 드라마 관계자들에게도 관련 정보에 대한 ‘비밀 엄수’를 당부했다.

각 연기자의 매니저먼트사 관계자들은 ‘응답하라’ 시리즈부터 보안에 특별히 신경을 쓰기로 잘 알려진 신 PD의 방침에 적극 협조하는 분위기다. 한 연기자 측은 “편의를 위해 대본 복사본을 만드는 게 보통이지만 이번엔 그러지 않았다”며 “매니저와 헤어 담당자 등이 대본을 돌려보며 촬영을 준비해야 해 불편한 점은 있지만 제작진의 뜻을 존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일과 사랑은 별개”…현아-이든 연인의 경쟁

같은 소속사서 한날 한시 앨범 컴백

공개 연애 중인 가수 현아와 이든이 이번엔 경쟁자로 맞붙는다.

현아와 이든이 11월5일 나란히 새 앨범을 발표한다. 연인사이이지만 “일과 사랑은 별개”라는 평소 생각처럼 선의의 경쟁을 펼치게 됐다. 또 같은 소속사의 가수들이나 비슷한 장르의 경쟁 가수들이 컴백 시기가 겹치지 않도록 시기를 조정해왔던 가요계의 불문율을 과감히 깬다는 점에서 시선을 모은다.

현아와 이든은 지난해 ‘공개 연애 후폭풍’으로 전 소속사에서 함께 나온 후 올해 초 가수 싸이가 설립한 피네이션과 나란히 전속계약 체결하고 활동 재개를 위해 준비해왔다. 특히 각각 1~2년의 활동 공백을 끝내고 컴백한다는 점에서 한 명의 경쟁상대라고 피하기 위해 서로 활동 시기를 조율할 수도 있었지만 고민하지 않고 한날한시를 택했다.

두 사람은 타이틀곡 선정부터 뮤직비디오, 의상, 춤 등 앨범의 전반적인 과정도 전



현아(왼쪽)와 이든

프로듀서인 싸이와만 관련 업무를 논의해왔다. 싸이는 두 사람의 앨범 준비 과정을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공개하며 “실로 특이한 컷플”이라고 말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소속사 피네이션의 한 관계자는 20일 “현아와 이든 모두 가수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어떤 형태로든 기대 이상의 활동이 될 것이라고 자신한다”며 기대를 당부했다.

현아는 트레이드마크인 세시한 댄스에 새로운 장르를 가미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고, 이든은 기존의 활동명을 버리고 이번엔 ‘던’으로 새롭게 시작한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

13

2019년 10월 21일 월요일

스포츠동아

연예뉴스 HOT 4

솔비, ‘로마공주’ 별명 상표권 등록



솔비

가수 솔비가 자신의 별명을 상표권 등록해 화제다. 솔비는 19일 SNS를 통해 “내가 대한민국 공식 로마공주”라는 글과 함께 상표 등록증 사진을 게재하고 최근 특허청에 ‘로마공주’라는 별명을 상표권 등록한 사실을 알렸다. 솔비는 2016년 MBC ‘라디오스타’에서 “전생에 로마공주였다”고 말해 눈길을 모은 뒤 별명을 얻었다. 솔비는 최근 미술작가로서도 활동하며 개인전을 열기도 했다.

대세 김응수, 버거킹 광고모델까지



김응수

‘대세’ 김응수가 쏟아지는 CF 출연 러브콜 속에 최근 버거킹 햄버거 광고모델이 됐다. 이는 19일 버거킹의 한 관계자 SNS 계정을 통해 알려졌다. 김응수는 해당 계정에 오른 동영상에서 “버거킹 하는 젊은 친구 중 신사답지 않은 친구가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이 버거킹 모델 아이언 드래곤이 묻고 또 더블로 묻고 체크하겠습니다”고 말했다. 최근 새삼 화제를 모은 2006년 출연작 ‘타짜’ 속 ‘곽철용’의 대사를 패러디했다.

빅뱅 지드래곤, 26일 육군 전역



지드래곤

그룹 빅뱅의 멤버 지드래곤(권지용·31)이 26일 전역한다. 지난해 2월27일 육군 현역 입대한 지드래곤은 이날 강원도 철원 육군 3사단 백골부대 포병연대에서 제대한다. 지난해 군 복무 기간이 단축되면서 당초 11월 전역 일정이 앞당겨졌다. 이에 따라 지드래곤의 향후 행보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빅뱅의 멤버 태양과 대성이 아직 군 복무 중이고,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관련한 갖은 사회적 의혹이 불거진 상황에 또 다른 멤버 승리가 은퇴했기 때문이다.

불안장애 미나, 팬미팅 깜짝 등장



미나

불안장애로 활동을 중단했던 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미나가 팀 팬미팅 무대에 깜짝 등장했다. 트와이스가 2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화정체육관에서 데뷔 4주년 기념 팬미팅 ‘ONCE HALLOWEEN 2(원스 할로윈 투)’을 펼친 가운데 미나가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 멤버들과 함께 했다. 미나는 8월 불안장애 진단을 받고 활동을 잠정 중단한 채 9월 트와이스 미니 앨범과 뮤직비디오 촬영에 참여했다. 한편 트와이스는 23일 일본에서 콘서트를 펼친다.

편집 | 심승수 기자 sss23@donga.com